

‘시물라시옹’의 철학자 보드리야르의 타계

체계의 의미에 역설로 맞서고, 체계의 완벽성에 냉소로 답했던 그의 글쓰기

글_이상길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실재 너머로 사라진 보드리야르”.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이 지난 3월 6일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부고기사에 붙인 제목이다. ‘시물라시옹’의 철학자 보드리야르의 타계로 20세기 후반기 사상계를 이끌었던 프랑스 지식인들의 퇴장이 이제 막바지에 이른 느낌이다.

보드리야르는 1929년 프랑스 랭스(Reims)의 한 소농 가정에서 태어났다. 소르본에서 독문학을 공부한 그는 대학 졸업 후 1960년부터 1966년까지 독일어 교사 생활을 한다. 이 시기에 그는 마르크스, 브레히트, 페터 바이스 등의 저작을 번역하기도 했다.

사상가로서 보드리야르의 본격적인 이력은 첫 저작인 《사물의 체계》(1968)를 출간하면서 시작된다. 이 책은 그가 파리10대학에서 앙리 르페브르의 지도 아래 썼던 사회학 박사학위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거기에는 르페브르 말고도 논문의 심사위원을 맡았던 롤랑 바르트, 피에르 부르디외 등의 연구 테마가 흥미롭게 어우러져있다. 일상생활을 이루는 다양한 사물, 그리고 그와 연계된 기호가 계급적으로 소비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그것이다.

첫 책에서 드러난 “기호로서 사물의 소비”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킨 《소비사회》(1970)는 그를 단번에 유망한 사회학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초기 저작들에서 보드리야르는 1960년대를 풍미한 마르크스주의와 정신분석학, 나아가 기호학과 (기 드보르가 주축이 되었던) 상황주의 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온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1972)와 《생산의 거울》(1973), 그리고 《상징적 교환과 죽음》(1976)에서 그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점차 급진화시켜 나간다. 이 세 권의 저작은 그런 의미에서 보드리야르 사상의 중요한 전환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책들은 또 그의 초기 사상의 발전된 형태와 후기 사상의 기본적 토대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의 저작들, 그러니까 《시물라크르와 시물라시옹》(1981), 《아메리카》(1988), 《악의 투명성》(1990), 《완전범죄》(1995), 《토탈스크린》(1997), 《명징성의 협약》(2004) 등에서 그는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로 독창적인 이론을 풀어내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때, 고유한 스타일이란 다양한 시사문제에 대한 이론적 단상, 어떤 문제를 논리의 막다른 지점까지 밀어붙이는 아포리즘,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시적인’ 문체를 말한다. 또 독창적인 이론이란 무엇보다도 ‘시물라시옹의 시대’에 관한 철학적, 사회학적 성찰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77년의 생애 동안 그가 남긴 저작은 모두 사십여 권을 헤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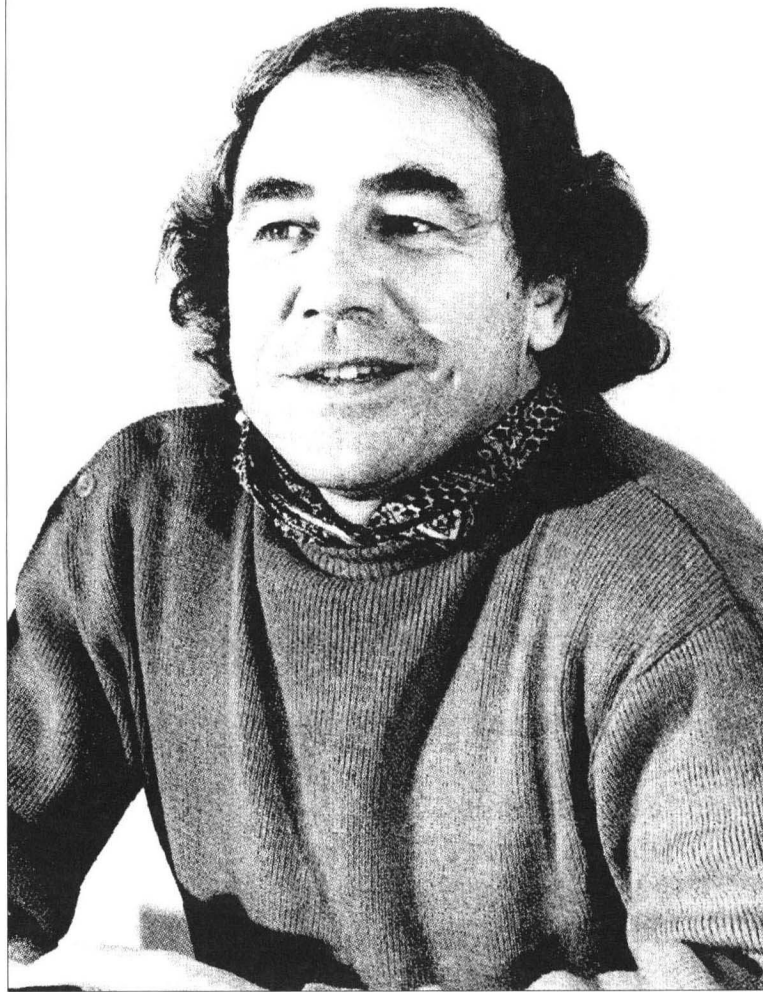
보드리야르 논리의 핵심에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에 대한 간파와 통찰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사회가 전후 경제 성장의 정점에서 1차 석유 위기로 들어서던 1970년대 초반 보드리야르는 자본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한다. 그 단계는 근본적으로 사물의 가치 변화와 관련된다.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한 사물은 구체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성에 의해 규정될 수 있고, 그 실질적인 쓸모에 의해 규정될 수도 있으며, (일반화된 등가성의 논리 속에서) 교환가치에 따라 규정될 수도 있다.

예컨대, 혼수품(선물)으로서 텔레비전은 결혼이라는 의례 안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띠며,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아니면 그것은 방송프로그램을 보여준다는 기능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20만 원의 가격이 매겨져 있는 상품으로서 다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보드리야르는 후기 자본주의 단계에서 이제 사물은 기호/가치에 의해 규정된다고 주장한다. 더 이상 텔레비전의 기능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특정한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그것의 기호성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텔레비전이라는 사물은 그것과 동일한 기호성을 가지는 다른 사물들, 예컨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이며 현대성에 대한 가장 뛰어난 해석자 중의 한 사람. 1929년 프랑스 서부도시 랭스에서 태어났다. 파리10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미국의 뉴욕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등에서 강의를 했다. 주요 저서로는 《소비의 사회》 《생산의 거울》 《유혹에 대하여》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 등이 있다. 지난 3월 6일 파리 자택에서 질병으로 별세했다.

사진제공_살림



대 오디오나 컴퓨터, 냉장고 등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 상징으로서, 기능으로서 사물이 다른 것이 대신할 수 없는 유일무이성을 갖는다면, 상품으로서나 기호로서 그것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 또 상징으로서, 기능으로서 사물이 주체와 세계에 대해 맺는 특정한 관계를 통해 정의된다면, 상품으로서, 기호로서 사물은 자족적인 교환체계, 기호체계 안에서 정의된다.

주의할 점은 기호/가치가 사회적 지위나 위세를 추구하는 개인의 의식적이며 심리적인 욕구 수준에서만 이해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그것은 오히려 차이의 사회적 생산을 질서 짓는 구조 수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사물의 소비는 일종의 기호생산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그것은 기호의 교환가치의 일반화를 바탕으로 체계화되기 때문이다. 이 기호/형식의 새로운 차원은 상품/형식의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재편했다는 것이 보드리야르의 주장이다.

즉 “일반적 등가성의 법칙 아래 이루어지는 물질적 상품교환의 추상작용에서 코드의 법칙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교환의 조작화로의 이행”이 있다는 것이다. 코드는 “모델들의 게임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형식”이며, “모델들의 순환 궤적이자 (경제만이 아닌) 한 문화의 총체적인 매개체”다. 착취의 구조보다 더 교묘하고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는 코드의 헤게모니 아래 모든 가치는 기호/교환가치로 이행한다. 이때 “기호는 상품이 내포하는 함축적 의미 이상의 것”으로, “구조적 조작에 적합한 실행구조”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가치의 구조적 법칙”은 경제를 넘어선, 정치, 문화, 예술, 학문 등의 사회 모든 영역에 확산되며, 시뮬라시옹의 시대를 가져온다. 상품의 교환가치는 사용가치나 욕구와의 관련성을 잃고, 고유의 논리에 따르는 자율적인 체계로 구성된다. 정보와 이미지 또한 의미와 지시 대상에 대응하지 않고, 그것들 사이에서 서로를 지시하고 교환된다. 그 결과 가치는 완전한 비결정성, 무차별성의 세계로 들어간다.

시뮬라시옹이란 이처럼 전통적으로 실재라고 여겨졌던 것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자유로워진 기호/사물, 기호/정보, 기호/이미지 등을 말한다.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시뮬라시옹의 체계는 자신의 진정한 기능작용을 가리면서 더 완벽하게 작동한다. 즉 교환가치는 사용가치나 욕구에 대한, 또 정보와 이미지는 의미나 지시대상에 대한 믿음을 그 효과로서 생산하는 것이다. 실제 그러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완결적인 체계에 갇혀있다면, 그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가능할까?

보드리야르는 기호교환의 논리에 균열을 일으키는 일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 체계가 여전히 가치와 의미와 실재의 존재를 가장한다면, 우리는 무가치와 무의미, 실재의 부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드리야르는 예컨대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 무감각, 표피적인 매혹 혹은 단순한 의미부정에서 침묵의 저항을 보았다. 그래피티와 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기호의 자발적인 생산은 그가 꼽는 저항의 또 다른 예다.

보드리야르는 자신의 글쓰기 또한 그와 같은 전략의 구체적인 실현이자, 기호교환의 논리에 상징적 교환의 복원으로 맞서려는 도전이라고 주장한다. 체계의 의미주장에 역설로 맞서기, 체계의 완벽성에 냉소로 답하기. 보드리야르의 글쓰기 스타일은 그 자체로 체계에 대한 급진적 비판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